귀신의 덫

(행16:25~40)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귀신의 덫>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함께 나눌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제목을 좀 더 자세히 만들어보자면, '귀신의 덫 빠져나오기'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귀신의 덫을 빠져나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목사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전도사 생활하고, 안수 받고 부목사 생활하고, 목회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전 과정을 함께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의 진로와 함께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저를 모르는데 제가 언제나 그분들을 사표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너무너무 좋아해서 당시의 어느 연예인보다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분이 바로 박 조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신학교 시절부터 젊은 목사시절까지 줄곧 제 마음에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분이 곽 선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관심을 갖고 생활하던 전 구간 동안에 언제나 존경도 물론이지만 하나의 과제처럼 여겨졌던 분이 조 용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신학, 3박자 축복으로 집약되는 그분의 신학이 도전이고 과제인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생활과 십자가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현실적인 요구와 압박을 십자가를 갖고 있는 신앙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를 언제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을 걷지는 않지만, 그분의 그 생각과 사상이 언제나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 분이 다 저한테는 스승과 같은 분들인데, 제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분들의 위기가 저의 위기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박 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목사 시절에 외화를 불법적으로 갖고 나가시다 걸리고, 난리가 납니다, 충격입니다.
곽 선희 목사님, 정말 세속의 가치를 초월하는 영적 지혜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시원~ 합니다, 이 세속의 가치에 갇혀 살고 있는 삶의 틀을 깨고 영적 가치를 기가 막힌 통찰력으로 제시하는 분입니다.
완전히 반했지요.
그런데 분당에 교회를 건립하는 중에 재정적으로 불투명한 과정이 끼어들게 되고, 5,6억 하는 밴틀리라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이 사회인들의 시각에 비판적으로 비쳐지면서 TV에 방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충격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초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평생 설교를 해 오신 분인데.
그리고 조 용기 목사님, 그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이 돈을 갖고 서로 다투는 과정 중에 말려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배임과 횡령죄로 기소가 되시는 지경에 이르십니다.
여기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한 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으니까, 한 경직 목사님의 말년에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계실 때 뵈었으니까.
그분에 대한 교인들의 지속적인 존경, 박 조준 목사님 곽 선희 목사님 조 용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잡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젊었을 때 신사참배를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가지시고, 그 죄책감 안에서 존경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분들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경직 목사님 얘기할 때 교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한 경직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언제나 이것이 숙제였어요, 지금까지도 숙제입니다.
당연히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분과 같은 존경스러운 삶을 경험한 모든 교인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그분에 대한 기억이 더 큽니다.
그분께 주례 받고 결혼하신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평생 그것이 자부심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부심보다도 그분이 내 결혼을 주례해주셨다는 자부심이 더 커요.
분명합니다, 이게 숙제에요.
또 하나의 숙제는 도대체 박 조준 목사님의 잡음, 조 용기 목사님의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사실, 곽 선희 목사님의 정말 누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자동차와 불투명한 교회건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잡음,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숙제를 안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는 본문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국 귀신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자,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수입원이 끊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관리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치게 됩니다.
이 매는 뒤에 바울이 한 말 중에, '너희가 로마인인 나를 죄를 정하는 재판과정도 거치지 않

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여기서 때린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데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 뜻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매를 맞아도 보통으로 맞은 게 아니에요, 말총으로 만든 긴 채찍 끝에 낚싯바늘 모양의 쇠붙이를 달아놓아서 그것으로 치면, 긴 말총의 채찍이 몸에 감기면서 마지막에 끝에 달아놓은 쇠붙이가 살에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 잡아당길 때 이 살점이 찢겨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매를 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귀신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일 때는 괴로워하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는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와중에 너무 충격을 받은 간수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래서 당국자들이 실지로 고소를 받아서 매를 치고 옥에 가두었지만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계속 감옥에 가둘 명분이 없어서 놔주려고 할 때, 바울이 '로마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를 너희가 정확하게 죄를 밝히는 재판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슬며시 나를 놓아주려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나를 때리게 했던 당국자 관리들이 와서 나를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거세게 밀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로마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형장에서 매 맞기 전에 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시민권자는 로마제국 내의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어디든지 가서 문제가 생겨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면, 그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치 않으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법을 무시하고 로마시민권자를 지방법원에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함부로 재판해서 형을 가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관리들이 중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사형까지 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시민권자를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관리들은 바울이 나쁜 맘을 먹고 로마에 알리기만 하면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로마시민권자 됨을 왜 형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로마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그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까 하는 의문이 바로 바울이 귀신의 덫을 빠져나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덫을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이 바울만의 작전이 아니라, 성령님과 공조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이 귀신의 덫을 바울이 빠져나가는 일을 도모하시게 되는데, 그 결과가 지진이에요, 지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만약에 형장에서 옷이 벗겨 찢겨지고 매를 맞기 전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귀신들린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껏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용한 점쟁이들은 당시 그 지역사람들에게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상태에요.
그런 자가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형장에서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끝난 거죠, 바울과 실라는 제우스가 되고 헤르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했지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지금 우선은 안 보여요.
당장에 귀신들린 점쟁이가 높여놓은 바울과 실라만 보이는데, 이들에게 형벌을 가하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어떻게 덫을 놓는지 한번 봐요.
바울과 실라가 주어가 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높으신 하나님과 구원과 복음의 길이 다 바울과 실라를 높이는 수식어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높였을 때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든지 간에, 그 모든 역사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은 다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덫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한껏 높여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시든지 모든 영광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로 다 돌아가고 귀속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귀신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로 다 집중되니까, 그래서 귀신의 덫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덫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로마시민권자임을 얘기 안 하고 이왕에 일으키실 지진을 감옥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감옥 안에서 일으키신 바람에 당국자들은 못 봤어요,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도록 되어 진 이 상황이 형장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와 무엇이 다를까요?
감옥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귀신들린 점쟁이가 높였던 바울과 실라가 전혀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옷이 벗겨져 굴욕을 당합니다, 매를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나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다운 권세와 위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간수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질질 끌려서 자기가 지키는 감옥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 인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다운 위엄이 어디 있고, 그런 면모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간수 입장에서 봅니다, 분명히 비참하고 처참하게 당할 때 손 하나 못쓰고, 변호 한 마디 못하고 당한 그저 무력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 간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비참했었던 그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간수의 관심은 그 비참한 모습을 띠고 감옥에 갇힌 인

간의 배후에 누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가 하는 쪽으로 관심이 향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형장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에요.
전부 바울과 실라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간수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비참한 모습의 인간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 이거 참 묘한 역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 당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와서야 지진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바울은 로마시민권자임을 얘기하면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고 다 당해버립니다.
바울과 성령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에 방해되는 귀신의 덫을 빠져나오는 작전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귀신의 덫을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루디아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 돼요.
14절과 15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을 대접합니다.
어떨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인의 관계는 교인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실 때, 목사님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교인에게 생기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님이라는 개인이 교인의 관심을 자기에게 끌어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귀신의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곽 선희 목사님이 6억짜리 밴틀리를 타고 다닙니다, 그분의 설교는 세속의 가치를 초월하는 영적 통찰력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걸 꼭 타셔야만 됐을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차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분이 지금 그 연세가 되셔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랜저 정도 타고 다니시면서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다면 계속 곽 선희 목사님을 존경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 선희 목사님도 인간으로서 죄인이시다, 그런데 그 죄인의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통찰력으로 가득 찬 설교가 나왔을까? 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죄인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조 용기 목사님의 그 사역과 전도활동, 그 평생의 업적, 근데 몇 달 전에 횡령과 배임죄로 기소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아, 자식에게 약한 부모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연루되어 배임과 횡령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되신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교황도 죄인 됨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인 됨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숙명적인 굴레 안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셨고, 그런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내셨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은 아직도 한 경직 목사님의 신화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경직 목사님의 신화를 깨버리고 한 경직 목사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경직 목사님도 죄인이셨구나, 한 경직 목사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심지어는 인격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으셔서 이루신 것이로구나!'라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귀신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얼마나 인간적인 지혜가 출중해야 정말 교묘한 이 귀신의 간계를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 됨을 한시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럼으로 십자가를 잃지 않게 하시며, 어느 순간에도 사람들의 나를 향한 존경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